

믿음은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성경: 히11:1-3

요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르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
믿음, 교회에서 은혜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말

롬1:16-17(*)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 청년들, 청장년들, 앞으로 오래 살 사람들을 위해 나이든 사람이 설교한다.
오늘 제목 < > 즉 믿음에 의거한 성화의 길이란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려 한다.

히브리서 총 13장, 히브리 성도들 대상, 이 사람들 극심한 핍박을 받음

그 결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배도의 길로 들어서려 함

사도 바울: 1-10장은 구약과 신약의 비교,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

예수님: 천사들, 대언자들, 모세, 여호수아, 짐승의 희생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 제사,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매우 감격스러운 내용

10장 배경 설명

10장의 핵심: 예수님의 단번 속죄 10절, 14절, 그 결과 16-18

19-25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믿음 지키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26-39절: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려는 자들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26절의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의 요점 구약 시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자들, 다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냄, 이들의 악한 보고, 백성들의 동의, 20세 이상의

장정들 모두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민32:11)

이스라엘 백성의 고의적인 죄는 고전10:1-1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불평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즉사함(레10)

고라의 무리들,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음(민16-17)

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지 못함

그 결과 가나안의 복 즉 성화의 복을 얻지 못함

성도라고 해도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징계가 오고 심한 경우 죽는다(31, 12:5-11).

그래서 우리는 12:28-29처럼 살아야 한다.

확신을 가지고(35)

약속하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다(36), 이 일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의 요약 10:38, 함2:4; 롬1:17; 갈3:11

로마서는 의인에 초점을 두면서 칭의를 강조한다.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히11-13장의 핵심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39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믿음은 특별히 구원받은 뒤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믿음,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을 막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려면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정의(히11:1-3): 믿음이란 무엇인가?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여기의 실체는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집을 지지하는 기초와 같다. 쥘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긴다.
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고전2:9), 하나님, 천국, 영생 등
3. 믿음은 증언하는 증인들을 만들어 낸다(11:2; 12:1). 좋은 평판(good report)을 얻는 이들을 생산해 낸다.
4. 믿음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 준다(3절). 특히 세상과 우주의 창조

믿음이 실체이고 증거인 사례들(4-40)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라합, 32절 특히 심히 어렵게 산 사람들(33-38)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39),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대에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함

1. 아브라함, 창15:5-6

눈으로 보지 못함, 그런데 그에게는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었다(히11:1).

그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짓는 사람을 살면서도 실체와 증거를 붙들면서 살았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끝까지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시대: 실체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2. 사라도 마찬가지(11), 90세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믿음으로

사라 역시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시대: 실체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두 사람의 믿음의 결과, 2,000년 뒤 메시아 출생,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흥왕함(12)

3. 모세에 대한 증언(26-28)

a. 그리스도의 실체 확인, 하늘의 보상

b.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c. 유월절, 피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의 실체, 증거, 실제로 그 일은 1,500년 뒤에 드러남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타는 일들 요약

1.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개 반대로 행한다(모세).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들의 문화, 습관, 생활 약식대로 살지 않는다. 벧전2:11-12
2. 현재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 모든 것을 베풀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아브라함 11:9-10
3.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한다. 고후4:17-18

항상 기쁠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어려움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죄도 짓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실체와 증거가 있었다.

확신의 근거: 6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해 주시는 분이려면 내게는 지금 실체와 증거가 있다.

10:35-36

살다가 확신을 잃게 되는 경우

히11:3을 늘 기억해야 한다.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상들(동식물, 인간, 우주 등)이 말씀에 의해 창조됨(창1; 요1:1; 히1:2).

나는 유한하다. 무한하신 분이 계시다. 그냥 생겼을 리가 없다.

그래서 시8편, 139편 등의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는다.

나의 삶

가난한 가정의 세 아들들 중 맏아들

아버지는 6.25사변 당시 이북에서 내려온 반공 포로, 혈혈단신, 술고래
어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삶
어머니는 내가 17살 때 전신 화상,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실체와 증거를 가졌다. 당시는 어려워도 나는 이 두 분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교 이후 지난 45년 동안의 삶

지금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할 때는 앞날을 알지 못하므로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인하대학교 특별장학생, 교수 요원, 학비

캐나다 유학, 아버지가 병상에 있어서 외적으로 거의 불가능, 그러나 발을 뗐다. 전액 장학금
40년 전에 아내를 만났다. 우리 둘 다 외적인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 양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내와 처가의 성품이 좋다. 결혼해야 한다는 필요, 100달러 반지 사서 그냥 결혼함

그 이후 미국 이민, 아이들 출산, 미국 직장(심히 어려웠다), 한국 직장(교수가 됨)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미국으로 보냄, 공립학교, 외할머니

공립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좋지 않는 데로 빠지리라는 생각 갖지 않고 믿음으로 보냈다.

사진들, 3년 만에 미국 방문

큰 아이, 중학교 때 알게 된 이황로 목사님 아들 기쁨과 결혼, 믿음으로 허락
막내 아이, 흑인 신랑을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고민함, 믿음으로 허락,
둘째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타남, 믿음으로 허락함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앞날을 예측하고 비교분석하고 따지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가? 성품이 좋은가?

그런데 다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낙심과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버티고 있다는 말이다.

성경 번역, 앞날을 모르고 시작함, 3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교회, 앞날을 모르고 시작함, 내 집과 전 재산을 걸어가면서 목회할지 몰랐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다 믿음으로

그러는 가운데 예배당 건축, 목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결정, 잘못하면 내 모든 것이 날아간다.

드디어 믿음으로 결정, 지금의 서창 캠퍼스

5년 정도 마제스티 에디션 교정

출간 이후 설 만하니까 또 다른 일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모든 책들, 소책자 정리

몇 권의 책들은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무료로 주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10,000여 페이지를 읽고 교정하는 일,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도와줌. 그러나 너무 어려웠다. 아무 기쁨이 없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확신이 들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고 힘들면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서

창조자가 계심을 믿으면서, 보상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아내와 함께 실체와 증거를 부여잡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실체와 증거를 부여잡고

고후5: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앞날을 다 알고 받을 띠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을 띠는 것이다.
 나는 히11장의 믿음의 영웅들과는 비교 대상이 못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 전혀 보여 주지 않고 그들이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심
 여기에 나는 소망을 두고 앞으로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내 아이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낙심, 고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